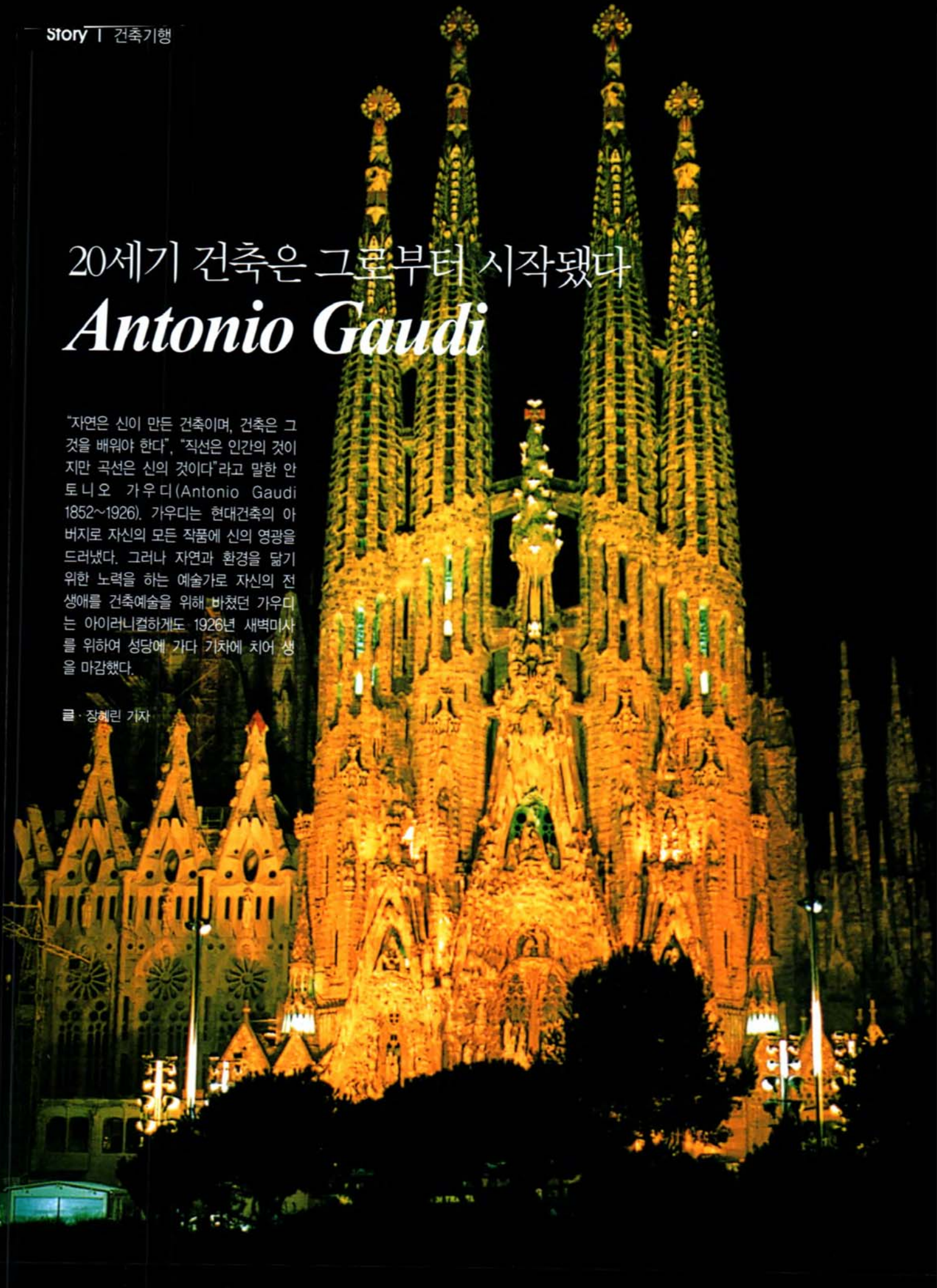


# 20세기 건축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Antonio Gaudi*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직선은 인간의 것이지만 곡선은 신의 것이다”라고 말한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1852~1926). 가우디는 현대건축의 아버지로 자신의 모든 작품에 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을 닮기 위한 노력을 하는 예술가로 자신의 전 생애를 건축예술을 위해 바쳤던 가우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1926년 새벽미사를 위하여 성당에 가다 기차에 치어 생을 마감했다.

글 · 장혜린 기자



### 건물로써 자신의 철학을 선보여

가우디는 스페인 남부 카탈루냐의 레우스에서 구리세공의 아들로 태어나 17세 때부터 건축공부를 시작,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를 졸업했다. 학창시절에는 비라르와 폰트스레 등의 조수로서 설계활동에 종사하였으며, 1878년 학교 졸업 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일을 시작해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많은 독창적인 건축물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항상 건축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가우디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본은 주위에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이라는 완벽한 신의 창조물을 바탕으로 건축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디의 모든 건축은 독창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준 그것과 매우 유사한 균형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가우디의 작품을 살펴보면 선은 곧은 것이 없으며, 입면은 들쭉날쭉하다. 외관은 바로크양식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우디의 작품은 당시 불합리한 점이 더 많았다. 이 시대의 건축가는 논리성을 갖는 미학과 추상화적인 과정을 거쳐 설계를 하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자와 콤팩스를 사용했다. 건축자재를 자르거나 형태를 만들 때에도 이를 활용하여 2차원의 평면과 직선, 원과 다면체에서 5각형의 12면체인 3차원으로 바꾸어 갔다. 그러나 가우디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형태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연적이며, 변형이 많고, 쉽게 인지되지 않는





곡선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 이는 플라톤이 주장하고 이론화 한 제5의 원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우디의 작품은 이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이는 처음부터 기하학을 사용한다면 아주 단순한 기하학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가 사용한 것은 통제기하학(regulated geometry) 이를 응용하여 세기 시에 남을 만한 걸작을 남겼다.

#### 독창성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

가우디는 리우돔 마을의 조그마한 시골집에서 여름이면 관찰할 수 있었던 자연 형태의 아름다움과 타라고나의 시골 풍경의 광명스러운 점에 감명을 받아서 자연이라는 것이 광물,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 아름다운 형태를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또한 자연의 의도는 원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유용하고 기능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건축에 적용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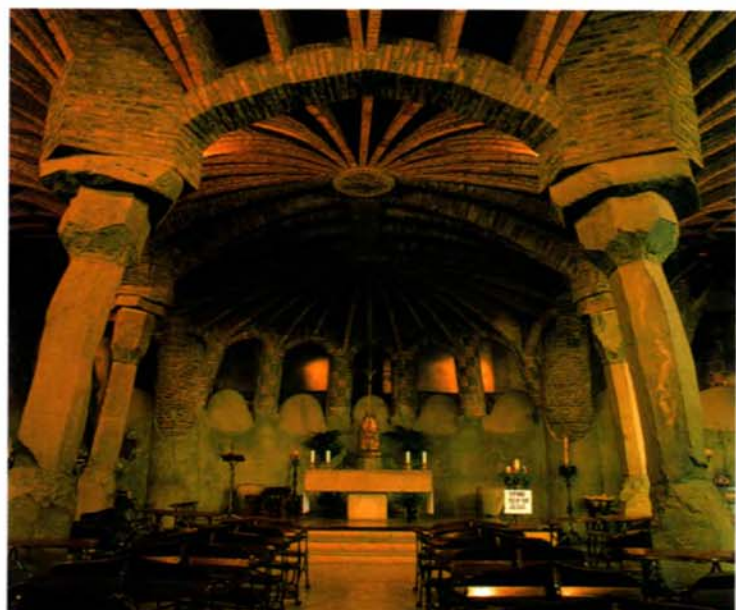
가우디의 기하학적인 모형의 건축물들은 구조계산이 없는 채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첨단 장비를 동원한 구조계산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완벽한 균형감각이다. 가우디의 건축형태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할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가히 독창적이다. 그의 작품은 가우디가 말했듯이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이 베풀어 주는 매우 균형된 자연적 구조"인 것이다.





가우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모방은 창조  
 의 어머니가 아니라 대자연에서 영감을 찾는 것이다.  
 가우디는 자연적인 형태에도 다양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반복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간파했다. 가  
 우디는 또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경이적인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재래의 건축 양식과는  
 달리 그는 시간을 초월한 자연 속의 그 무엇인가를 찾  
 곤 했다.

가우디의 건축은 항상 자연 속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았  
 기 때문에 결코 피곤하지 않으며 그가 살던 시대와 마  
 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가우디는 소박하고 수줍으면서도 매우 예민  
 한 사람으로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건축 형태를 이해하  
 였고, 자연에서 비롯되는 구조와 외형으로 인간에게 유  
 용하면서도 편안한 건축물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H2**



## 가우디의 작품과 건축양식

가우디는 쌍곡면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성을 이룩하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역동적이고 불규칙적 형식으로 시도되었다.

그의 작품은 어느 특정한 분야나 양식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체계로서는 분류하기가 힘들며, 어느 특정한 스승으로부터 사사 받은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우디는 그의 작품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들려 하였다. 시멘트로 완벽하게 건물을 지으며 가구나 유리창, 단절된 일부 등 모든 종류의 보조 요소까지도 설계하면서 미세한 부분의 구조까지 치밀하게 신경을 썼다. 또한 모델을 반복하는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가우디 건물 하나하나가 제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과 유사한 면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되며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노력과 특징이 담긴 하나의 건물만 존재하게 된다.

### 카사 밀라 (Casa Mila)

자른 돌을 그대로 쌓아올렸기 때문에 일명 '라

페드레라' (La Pedrera) 라고도 불린다. 철저하게 직선을 배제하고 일그러진 곡선을 강조하는 이 세기말적인 건물은 20세기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옥상에는 올라갈 수 있다.

### 콜로니아 구엘 성당

(Esglesia de la Colonia Gu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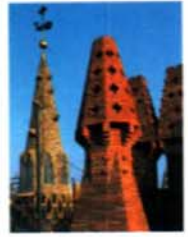
바르셀로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Sta. Coloma de Cervello에 있다. 구엘이 계획한 커뮤니티 건설의 하나로서 세워진 것인데 완성된 것은 지하 성당뿐으로 가우디 만년의 대표작이다.

### 파라시오 구엘 (Palacio Guell)

람블라스 거리에서 노우 데 람블라 거리를 약간 들어간 곳에 있는데 이 거리는 좁으므로 구



엘 저택 전모를 바라보기는 힘들다. 맞은편에 있는 호텔 가우디에 좋은 방을 잡는다면 그 기묘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택 안은 현재 연극에 관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천정에서 기둥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장식은 역시 가우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Sagrada Familia)

거대한 옥수수 4개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듯한 이 작품은, 1882년 3월 19일 성 요셉의 날에 시작된 건설 작업이 10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까지는 200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현재 완성된 것은 지하 예배당, 아프스부, 현관 하나와 탄생문으로 중앙에는 160m의 탑이 설 예정이다.



〈사진 · teNeues〉



